

NEWS

2025년 8월 5일 화요일

“전남, 취약지역 중심 맞춤형 방어체계 시급”

공항 ‘콘크리트 둔덕’ 없앤다 공항시설법 개정안 국회 통과

‘12·29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 안전시설 등의 물체를 부러지지 쉬운 재질, 최소 중량·높이로 설치하도록 했다.

무인공항에서 큰 피해를 부른 콘크리트 둔덕 같은 방위각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그간 고시로 운영했던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구속력을 높였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물체의 재질과 위치 정보는 공항 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항·비행장에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선할 때 적용하는 시설 설치기준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국제 기준과 부합하게 운영할 것을 명시했다. 공항과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은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공항운영자는 공항별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험관리계획 시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면 ‘양극관리법 통과’서 계속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비 제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 가격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준 가격은 당해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상 ‘기준가격’ 용어를 ‘공정가격’으로 수정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10년간 호우 피해 3284억...전체 77% 수준 에·경보 체계 확대, 하천 설계기준 강화 등 필요

전남이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의 직격탄을 맞으며 홍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 가운데 77%가 호우로 인한 것이며, 특히 고령층이 밀집한 인구감소 지역과 지하건축물이 많은 도심 일대의 구조적 취약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맞춤형 방재 인프라와 예·경보 시스템, 통합형 재난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4일 발간

한 ‘전남의 홍수 위험 특성 분석 및 정책 방향’ 리포트를 통해 최근 전남에서 발생한 호우 피해 현황과 지역별 홍수 취약성, 대응 방향을 종합 분석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재해연보’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남의 자연재해 피해액은 총 428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3284억원이 호우로 인한 피해였다. 2020년에는 한 해에만 250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최근 5년간 피해 규모가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올해 7월에도 전남 나주 418mm, 담양

381mm, 함평 348mm 등에서 100년에서 200년 빈도를 초과하는 기록적인 강우가 관측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과 상가, 농경지 등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반복 침수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대피 지연과 응급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남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도내 홍수 잠재위험지역은 총 961km에 달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13만 6000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한다. 이중 일부 지역은 지하건축물의 비중이 높고, 저지대 도로도 총 2.2km에 이르러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도심의 노후 인프라와 고령 인구의 밀집도도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순천, 여수, 구례 등지의 경우 홍수 위험지역 내 고령인구 비율이 33~35%로 나타났다. 목포, 여수, 순천 등 도심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지하 공간이 밀집해 있어 구조적 위험성과 대피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전남연구원은 취약지역 중심의 선제적 방어 인프라 확충과 예·경보 체계의 고도화를 제안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의 주요 구간에 대한 설계 기준을 극한 강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해안 저지대의 침수 대응 계획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남의 지형, 인구, 기반시설 분포 등을 반영한 데이터 기반 홍수 리스크 평가를 바탕으로, 통합형 재난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체계

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효성 있는 기술적 방안도 제시됐다. 침수 발생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하도로에는 수위 감지센서와 CCTV를 연계한 AIoT 기반 자동 차단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정 수위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차단막이 작동하고,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 교통방송, 스마트폰 알림 등을 통해 차량 우회 안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인성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홍수 위험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학적 기반의 예방 중심 관리체계가 시급하다”며 “지역특성과 피해 이력을 반영한 실질적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4일 오전 극한호우가 쏟아진 함평군 전지전통시장 피해 현장을 방문. 피해 현장을 침투하고 신속한 복구 대책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김영록 지사 “재해 구호 빈틈없도록 지원” 당부

함평 침수피해 현장 살피고 복구 대책회의...신속 조치 지시 피해 지역·유형 등 따라 최대한 지원되도록 적극대응 강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속출한 전남지역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4일 직접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즉각적인 복구와 실질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이날 전남에는 오전까지 평균 66mm의 비가 내렸고, 무안 망운면은 289.6mm, 담양 봉산 179.3mm, 구례 성삼재 188mm 등 지역별로 극한 강우가 관측됐다. 특히 무안과 함평 일대를 중심으로 주택과 상가, 농경지가 침수됐으며, 함평 전지전통시장에서는 상가 46곳이 물에 잠겼다. 피해 신고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함평 전지전통시장 침수 현장을 직접 찾아 상인들을 위로하고, 피해 현황을 면밀히 살폈다.

현장에서 김 지사는 “조속한 복구에 총력을 다하되, 단순한 복구를 넘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행정이 선제적으로 움직여라”고 강조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직후, 김 지사는 호우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분야별 피해 규모와 대응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으며, 김 지사는 “작은 피해라도 누락 없이 세심하게 화

인해 구호와 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피해 유형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도민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국비 지원과 별도로 도 차원의 지원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재민 대책과 관련해선 “에어컨이 설치된 학교 강당, 마을회관 등을 대피 시설로 적극 활용해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긴급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 침수와 상가 피해, 농경지 유실 등 피해 유형을 신속히 집계하고, 응급복구와 병행해 피해 보상 및 국비 지원 건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첫 실무 회의

국토부 주재 지자체 협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실무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의 부단체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주재로 첫 실무 협의를 나눴다.

이번 만남은 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에서 진행한 타운을 미팅 이후 후속 조치다. 대통령실과 국토부,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참여하는 ‘군공항 이전 6자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앞두고 이뤄진 사전 조율 성격의 회의다.

이날 회의는 향후 TF 운영 방식과 참여 주체 간의 기본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본격적인 협의에 앞서 상호 이해와 소통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전 후보지로 지목된 무안군 내 여론과 민감한 현안들을 사전에 공

유하고, 논의 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취지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이날 국토부 회의에 앞서 도청에서 무안군 주민과 관련 실·국장, 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한 비공개 사전 간담회를 열고 지역 여론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주민 반발, 안전·환경 문제, 개발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으며, 전남도는 향후 TF 내 논의 과정에서 지역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6자 TF 공식 가동을 예고하고 있으며, 실무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협의 틀을 구체화 방침이다. TF가 본격 가동되면 군공항 이전지 선정, 주민 수용 방안, 재정 지원 및 지역개발 연계 전략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한 논의가 단계별로 이어질 전망이다.

장승기·이현규 기자 sky@

국제농업박람회, 식음시설 운영사업자 모집

(재)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2025 국제농업박람회의 식음시설 운영자를 오는 13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주제전시관인 농업미래관 옆 뷔페관(288석·600㎡)과 행사장 내 푸드트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전남·광주 지역 주소를 두고 해당 업종을 정성적으로 운영 중인 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농업박람회 누리집

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제농업박람회 행사운영팀(061-330-9221)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관수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 “상공적 행사를 위해서는 먹거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농업박람회를 빛나게 할 지역 유명 맛집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화순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즈라라

어린이들에게 호기심과 즐거움, 꿈 찾는 진로 체험!
키즈라라에서 30여가지 직업 체험을 만나보세요!

30여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관



꼬마허어로 슈퍼패과 함께할 수 있는

영유아 체험관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라라 잔디광장



키즈라라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체험

- 즐거운 삶의 문화를 창조하는 항공훈련센터·뷰티살롱 등
- 미디어로 소통하는 TV 방송국·1인 방송국 등
-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공룡연구소·AI 로봇연구소 등
-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쿠키·치즈공방·식품연구소 등
-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경찰서 등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온천1길 35

T. 1600-7953